

#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한 달’ 방역 상황 안정적이라 평가”

## 질병관리청, 6월 3주차 코로나19 발생 동향 분석 전주 대비 유행 0.8% 감소...23주째 위험도 ‘낮음’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감염병위기경보 단계 하향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8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과 주요 방역조치 전환 이후에 약 한 달이 지난 현재에도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

다”며 “향후에 위기 단계 로드맵에 따라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완전히 이뤄지는 시점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군 보호에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다. 이날 방대본이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을 보면 6월 3주차(18~24일)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218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6026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8로 유행 감소를 의미하는 수치인 1.0 미만을 2주 연속 유지했다. 코로나19 위험도는 1월 3주차부터 23주째 ‘낮음’ 수준을 이어갔다. 코로나19 위험도는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구분한다.

임 단장은 “위중증 및 사망자 수가 낮은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는 추세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2.7% 증가한 일평균 116명,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3.6% 감소한 55명이다.

6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은 0.13%, 치명률은 0.05%로 나타났다.

27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88개이며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23.4%이며 수도권 20.1%, 비수도권 27.1%다. 준-중환자실 가동률은 33.9%, 수도권 34.8%, 비수도권 33%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443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818개소가 있다. 자율치료 의료상담 센터도 전국 162개소 운영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XBB.1.5 10.8%, XBB.1.9.1 26.9%, XBB.1.9.2 23.5%,

XBB.1.16 17.6%, XBB.2.3 12.2%, 위 변이를 제외한 XBB 계통 변이는 5.2%다. 이 외에 기타 변이 검출률은 3.8%로 집계됐다.

18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2가 백신은 12세 이상 2387명, 18세 이상 2358명이 신규 접종했다. 60세 이상은 1386명,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383명, 면역저하자는 78명이 맞았다. 국내 백신 잔여량은 3480만8000회분이다.

면역저하자에게 투약하는 예방용 주사제 이부실드 사용자는 주간 15명이 늘어 누적 6260명이다.

누적 예약자 수는 6382명이다.

오유나기자



노란리본과 보라리본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의날 행사에서 행진을 마친 참가자가 리본을 만지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의날 행사에서 행진을 마친 참가자가 리본을 만지고 있다.

## 밤에 교무실 들어가 압수된 전자담배 흡친 간 큰 중학생들

### 울산 모 중학교 3학년 4명 교사 책상 뒤져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압수 당한 전자담배를 되찾기 위해 문이 잠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교직원 물품 등을 훑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기말고사를 10여일 앞둔 시점에 시험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학교 측은 시험문제를 전면 재출제하기로 했다.

28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생 A군 등 4명의 학생이 지난 23일 오후 8시께 방과 후 교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학생들은 얼마 전 교사에게 압수당한 전자담배 등을 다시 되찾고자 교무실에 침입했고, 교사 책상을 뒤져 전자담배와 현금, 물품 등을 훑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들어갔고, 당시 학교에는 야간 당직자 외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안장치는 학교 현관 입구에 설치돼 있었으나 스위

치를 켜지 않아 작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학생 중 한 명이 창문을 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고, 이를 본 학생이 학교측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26일에 학생들을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학교 교무실이 야간 시간대 학생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보안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 측은 “문이 잠긴 교무실에 학생들이 딱 한 개만 잠기지 않았던 창문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무실에도 별도로 보안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말고사를 1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시험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교무실에는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뿐 아니라 일대 학원가 등에도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학교 측은 시험지는 물론 시험문제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 대상 조사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시험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시험 출제기간에 학생들이 교무실에 들어간 만큼 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시험문제를 전면 재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의 단순 일탈 행위로 보이며, 해당 학생들이 시험지 유출을 위해 교무실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뉴스시

## 대림동 심야 흥기 습격 일당 중 2명 송치...공범 추적 중

### 흥기 무장한 채 남성 집단 폭행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골목길에서 한 남성을 흥기로 습격한 일당 중 일부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아직 달아난 일당과 공범들을 추적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2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2시55분께 흥기로 무장한 채 대림동 골목길의 한 음식점 앞에서 남성 B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 일당은 달아나고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습격한 3명 중 A씨 등 2명을

체포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가 공범들이 남아있어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나머지 일당 1명과 공범들을 추적 중이다.

이슬비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